

LÉVY GORVY

레비고비 뉴욕, 쿤터 위커의 회화와 수채화 신작 소개

쿤터 위커: 노트이션
Günther Uecker: Notations

2019년 11월 7일 - 2020년 1월 25일

레비고비
909 매디슨 애비뉴
뉴욕

오프닝 리셉션: 11월 6일 수요일 6-8 PM



뉴욕-레비고비 뉴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쿤터 위커: 노트이션>展을 개최한다. 레비고비에서 개최하는 쿤터 위커 (1930년 독일 벤도르프 출생)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규모 ‘못 회화(nail painting)’와 함께 그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여행하며 제작한 수채화 연작을 선보인다. 작가의 서로 다른 작업들을 병치해 소개함으로써 전시는 위커가 지난 60여 년의 작품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그의 예술세계와 사회정치적 관심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노트이션> 전시는 2020년 1월 25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자신의 대표 작업인 못 회화 제작을 위해 위커는 두꺼운 목판 위에 캔버스를 입힌 후 흰색 페인트와 목재용 풀을 혼합하여 강렬하고 밀도 높은 표면을 만들고, 서로 다른 위치와 각도, 밀도의 못질로 물결형태의 부조를 완성하여 그 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회화적 구성과 물질적 존재감이 결합된 캔버스 위의 못들은 관객의 공간 속으로 들어와 성장과 움직임, 단합과 분열, 질서와 혼란(엔트로피)의 역학을 드러낸다. 시리즈의 신작 <하얀 비명 Weisses Schrei>은 위커가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표현한 작품으로서,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워커의 수채화 작업은 회화 작업과는 전혀 다르면서도 그의 작품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 작가의 스튜디오 작업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채화 연작은 그가 여행하는 다양한 장소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제작된다. 낭만주의 전통에 따라 작가는 풍경, 자연, 건축은 물론 각 장소의 빛과 기운으로부터 받은 강렬한 느낌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는다. 작가의 경험을 색다른 형태와 강렬한 색감으로 압축하며 워커의 수채화는 대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수채화 작품들은 호주, 브라질, 이집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미국, 베트남 등 작가가 방문한 세계 각지에서 받은 다양한 영감을 담고 있다.



워커의 수채화는 작품의 크기와 내용에서 매우 사적이고 친밀한 동시에 바깥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매우 공적이다. 반면 작가의 못 회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으로,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홀로 작업하며 마치 의례와 같은 수행적인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반복적인 청각적, 촉각적 과정을 통해 그의 못 회화는 명상적인 작업으로 완성된다. 그의 수채화와 못 회화 연작은 일견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동시에 유동성(fluidity)을 강조하며 공통적으로 움직임과 물리적 변화, 정신적 전환을 표현한다. 두 연작을 병치함으로써 이번 전시는 워커의 혁신적인 작업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레비고비는 <노테이션>展에 맞추어 쿤터 워커의 수채화 작업을 소개하는 첫 영문 도록을 출판한다. 도록에는 작가의 에세이와 함께 작가와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의 인터뷰가 수록될 예정이다.

작가 소개

쿤터 워커는 1960년대부터 Kunsthalle Bern (1966), Staatliche Kunsthalle Baden-Baden (1968), 스톡홀름 Moderna Museet (1971), Kunstmuseum Düsseldorf (1975), Staatsgalerie Stuttgart (1976), 베를린 Nationalgalerie (1982), Instituto Aleman de Madrid (1988), 비엔나 Museum Moderner Kunst Stiftung Ludwig Wien (1992), 리우데자네이루 Museu de Arte Moderna (1996), 베를린 Martin-Gropius-Bau(2005), 울름 Ulmer Museum(2010), Tehran Museum of Contemporary Arts (2012), 아바나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2014), 테헤란 Imam Ali Religious Arts Museum(2016)을 포함한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선보인 바 있다. 1998년에는 모스크바 The Central House of Artists 에서 그의 회고전이 개최되었으며,



1993년 뮌헨 Kunsthalle der Hypo-Kulturstiftung 과 2015년 뒤셀도르프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이어졌다.

주요 수상 이력으로는 2000년 독일 Der Orden Pour le mérite für Wissenschaften und Künste 를 비롯해 2005년 베를린 Berliner Bär, B.Z. Kulturpreis, 2010년 뒤셀도르프 Jan-Willem-Ring, 2015년 Staatsprei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등이 있다. 위커의 작품은 Art Institute of Chicago, 뉴욕 Solomon R. Guggenheim Museum, 로스앤젤레스 Museum of Contemporary Art, 뉴욕 Museum of Modern Art, 미니애폴리스 Walker Art Center, 베를린 Hamburger Bahnhof, 베니스 Peggy Guggenheim Collection, 쾰른 Museum Ludwig, 파리 Centre Georges Pompidou, 슈투트가르트 Staatsgalerie, 암스테르담 Stedelijk Museum, 런던 Tate Modern 을 포함한 세계 유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에 거주하며 활동 중이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

Andrea Schwan, Andrea Schwan Inc., andrea@andreaschwan.com

이미지 (상): <하얀 비명 Weisser Schrei>(2019). 목판, 캔버스에 흰색 페인트와 못. 200 x 160 cm.

사진: Ivo Faber. 이미지(중): <구름 Wolken>(1992). 수제종이에 수채. 13.5 x 19 cm. <구름 Wolken>

시리즈 중에서. 사진: Ivo Faber. 이미지 (하): 리비아 사막, 1977. <두 선이 만나 이루는 점에 못질하기

Where Two Lines Meet is a Point, That's Where I Drive My Nail In> 작가 제공, 위커 아카이브. ©

2019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G Bild-Kunst, Bonn. © Wilfried Kaute. 이미지

저작권: © 2019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VG Bild-Kunst, Bonn.